

#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K-드론'

###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개최... 해외 14개국 32명 관계자 참석 지식정책포럼·드론축구대회 등 진행

전주시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22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식정책포럼과 전시·홍보관, 시민 체험 프로그램,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K-드론'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유관기관 및 드론기업 관계자, 미국·프랑스·벨기에 등 해외 14개국 32명 드론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산업박람회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협력 MOU' 체결을 통해 드론축구 세계화와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됐다.



전주시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22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한 드론산업 성과를 홍보한 '전주관' 국토정보공사와 농촌진흥청의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을 소개한 '지역관' 20개 기업이 첨단기술의 완성체인 다양한 드론제품을 전시·홍보한 '기업관'

전주대와 전주비전대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전시·홍보관도 운영됐다. 이외 부대행사로 드론축구 아카데미와 3D 펜·프린팅 작품 만들기 등 시

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전국 드론축구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22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전주

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전주 드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친환경 '그린스포츠 캠페인' 전개

### 전북환경청, 전주KCC 이지스 프로농구 홈경기서 추진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전주KCC 이지스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2022년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12일 전개한다.

그린스포츠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친환경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전주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녹색기업협의회'가 지난 2014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친환경생활 실천 동참을 주제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점오염 저감 방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구경기가 진행되는 전주실내체육관과 전북환경청 누리소통망에서 함께 추진한다.

특히 12일 전주KCC 홈경기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람객을 대

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선착순 입장객 300명에게는 전주KCC 이지스 다회용 응원용품(응원타월)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경기 중 작전타임·휴식시간을 활용하여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영상 시청과 환경퀴즈를 진행하여 당첨된 관람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북환경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친환경생활 실천 이벤트를 추진하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토지이용계획 시민 의견 수렴

### 전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이메일·팩스 등 서면 접수

전주시는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관련 접수된 의견을 받아 타당성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12일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면 접수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알림 마당 새 소식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전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이메일(hong0808@korea.kr) 및 팩스(281-261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계획과(281-2418, 24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시는 역사도 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전주시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결정기준 수립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본격 착수한다. /최아영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은 경찰청 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전북청 집회시위 자문위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 전북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간담회 가져

전라북도경찰청(청장 강형수)은 경찰청 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전북청 집회시위 자문위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지난 9일 행사에 앞서 김종신 정보과장, 집회시위자문위원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 전북도연맹 주최 '농민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에 참관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법질서 확립,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강형수 청장은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현장 대응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으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안녕과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문 위원들이 공정한 자문으로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 조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관상 수상

전주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자율성모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역할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생산성 대상에는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역량, 재정역량, 행정 역량,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안전과 건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더욱 생산성 높은 도시,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추진

앞으로 팔달로, 전라강영로 등 전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이미지가 깨끗해질 전망이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을 지난 9일 추진했다.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은 담장, 전신주, 변전함, 가로등 등에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 후 남은 각종 전단지 및 스티커 부착 잔재물(노끈, 테이프)까지 제거하는 사업이다.

완산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근주조를 편성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

지 않고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과 함께 고질적인 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도 12월 9일까지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은 119건으로 약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1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불법 현수막 적발시 계도위주로 진행 하다 1장당 약 320,000(21년 250,000원) 행정처분이 받게되며 또 벽보 1장에서 10장까진 약 8,000원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